

-(-으)ㄴ 후에

~한 후에, ~한 다음에

-기 전의 짝이지만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. ‘후’는 과거 관형형 -(-으)ㄴ을 쓰므로 어간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, ㄹ은 탈락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ㄴ 후에	가다 → 간 후에
자음으로 끝남	-은 후에	먹다 → 먹은 후에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든 후에
같은 의미	-(-으)ㄴ 다음에 / 뒤 에	먹은 다음에
명사와 함께	명사 + 후에	식사 후에
불가	앞에 앓/엇 불가	갓은 후에(×)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은 -ㄴ 후에를 붙이고 ㄴ이 받침으로 들어갑니다: 가 → 간 후에. A 자음 어간은 -은 후에를 붙입니다: 먹 → 먹은 후에. 어간이 ㄹ로 끝나면 ㄹ이 탈락합니다: 만들다 → 만든 후에.

여기서 -(-으)ㄴ은 관형형 체계의 과거 관형형이므로, 이미 완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그 위에 앓/엇을 더하면 틀립니다: 갓은 후에라는 형태는 없습니다.

후에와 가까운 표현도 곧 만나게 됩니다. 다음에와 뒤에는 같은 뜻으로 자유롭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. -고 나서도 ‘~한 후에’라는 뜻인데, 앞의 행동을 끝낸 뒤 다음 행동을 시작한다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.

■ 예문

- 1 숙제를 한 후에 놀아요.
- 2 수업 후에 만날까요?
- 3 밥을 먹은 다음에 산책했어요.
- 4 한국에 온 후에 많이 배웠어요.
- 5 손을 씻은 후에 드세요.
- 6 일이 끝난 후에 연락할게요.

■ 비교

-기 전에
같은 일을 반대 방향으로 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. ‘전’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-기를 쓰고, ‘후’는 어간에 따라 형태가 바뀝니다. 둘을 함께 연습하면 이 비대칭이 기억에 잘 남습니다.

먹기 전에 / 먹은 후에

-고 나서
뜻이 매우 가깝습니다. -고 나서는 앞의 행동이 완전히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고, -(-으)ㄴ 후에는 단순히 시간상 앞선 일임을 나타냅니다.

숙제를 한 후에 놀아요. / 숙제를 하고 나서 놀아요.

-(-으)ㄴ 지
역시 과거 관형형으로 만들지만,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 경과한 시간을 나타냅니다.

한국에 온 후에 (온 다음에) / 한국에 온 지 3년 됐어요. (온 지 3년이 지났다)

■ 주의

- × 밥을 먹는 후에 산책했어요.
- 밥을 먹은 후에 산책했어요.
- 는은 현재 관형형으로 진행 중인 일을 나타냅니다. ‘후’에는 과거 관형형 -(-으)ㄴ이 필요합니다.
- × 저녁을 만들은 후에 쉬었어요.
- 저녁을 만든 후에 쉬었어요.
- ㄹ로 끝나는 어간은 -(-으)ㄴ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 산 후에, 안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.
- × 한국에 왔은 후에 친구가 생겼어요.
- 한국에 온 후에 친구가 생겼어요.
- (-으)ㄴ이 이미 완료를 뜻하므로 그 위에 앓/엇을 붙이지 않습니다.